

##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기능

강 인 수 |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 I. 머리말

1990년대 이후 교육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상당한 변화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있어서 종전까지 교육법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천편일률적으로 학칙에 옮겨 놓은 상태에서 벗어나 대학의 본질적인 이념과 사명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대학들은 독자적인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대학교육의 목적을 대학의 성격, 설치 학과, 교육과정, 대학 운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은 대학과 대학원의 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의 변화는 국제사회의 고등교육에서 변화 경향과 국내 고등교육 시장의 변화 예측에 따라 각 대학이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 1994년 이후 대통령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가 3차에 걸쳐 고등교육 관련 개혁 내용을 제안한 이후 정부와 대학, 대학협의체가 이를 추진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체제를 재검토·재구조화하는 노력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면서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유도해 온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자극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변화 동향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고등교육의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대학은 대중적인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종래 대학이 주도하던 지식의 창조와 응용은 대학원 교육단계로 이양되고 있는 점이다. 사회 조직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대학원 교육의 주 기능이 지식과 기술의 개발·연구가 되면서 대학원 교육은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정부는 1995년 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원의 유형과 그에 따른 교육목적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등 대학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대학원 정책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각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기능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대학원은 사회의 고학력 추세에 편승하여 교원과 시설도 갖추지 않고, 대학의 위상 제고 방안으로, 대학 재정난 보완책으로 대학원을 설립하고 인가하여 선진 외국보다 대학원수나 재학생 수가 많은 과도한 팽창을 하고 있다. 대학원의 유형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이념과 기능이 혼돈되고 교육 내용은 부실하여 사회적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 대학

원의 수와 재학 인원 수가 지나치게 팽창함으로써 직업인의 재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간 기회균등의 실현이라는 점도 있으나, 설치 대학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수진의 부족, 교육 조건의 미흡,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의 경우 1999년에 89개교였는데,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41개교가 증가하여 현재 130개 대학이 교육대학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학부 과정에 교직과정이 없는 경우, 교육학 전공 교수가 한 사람도 없는 대학도 교육대학원을 인가 받게 되었다. 현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간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공급은 어느 대학원을 졸업하든 연수 성적을 활용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는 교원들이 쉽고, 편하고, 빨리 졸업시키는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에 맞추어 각 대학원이 입학생 유치를 위한 저질의 경쟁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대학원의 직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학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더욱 낮아지면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오늘의 대학원 교육의 어념과 제도, 그리고 기능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II.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기능의 문제점

### 1. 대학원 교육 현황

현재 각 대학이 설치 운영 중인 대학원을 유형별

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은데, 일반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과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등 이외에 특별법으로 설치된 대학원이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한국과학기술원(대학원명: 석·박사 과정), 광주과학기술원의 광주과학기술원(대학원명: 석·박사 과정), 한국정신문화원의 한국학대학원(석·박사 통합과정), 국방대학원의 안보대학원(석사 과정), 관리대학원(석사 과정)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대학원의 수와 학과 수 및 재학생 수는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에서 1970년 이후 대학원의 양적 팽창을 살펴보면 30년간 대학원의 수는 14.1배, 학생 수는 36.6배 증가하였다. 즉, 1970년에 64개의 대학원에 재학생이 6,640명이었는데 2001년에 905개의 대학원에 243,270명이 재학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대학 수가 2.3배, 대학의 학생 수가 11.8배 증가한 데 비하면 대학원의 수와 학생 수는 엄청난 증가를 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박사 인력이 인문, 사회, 이학, 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의 석·박사 과정 재학생 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 비해서는 적지만 기타 선진 외국보다 그 수가 많은 실정인데, 특히 인구 천명당 대학원 학생 수를 보면 미국 3.8명, 일본 1.6명, 프랑스 3.5명, 영국 2.8명, 러시아 0.7명이고 우리나라가 5.3명으로 가장 높다.

### 2. 이념과 기능의 문제

이러한 현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질적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2003년 대학원 학생 정원

〈표 1〉 대학원 유형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교육 목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	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산업체 연계	탈학문과정	
수업 형태	주간	주간	야간·계절제			
학위 과정	석·박사	석사 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 과정 설치	석사 과정	석·박사 과정	석·박사 과정	
수여 학위	학술 학위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전문 학위	학술학위	학술학위	
교육 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 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 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 교육			
설치	1개 대학 1개		1개 대학 1개	기존 대학원에 설치	기존 대학원에 설치	
학부의 교원·교사 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 없이 별도의 전임교원, 독립 시설	학부와 연계			
배출 인력	연구 및 교수 인력 양성	전문직 인력 양성	직업인의 계속교육			
현황	학교 수	138교	72교	174교	50교	47교
	대학원	138개	99개	708개	51개	48개
	입학 정원	53,117명	6,331명	55,310명	1,773명	2,281명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2003년, 학교 수 및 입학 정원은 2002. 4. 1 기준임

〈표 2〉 대학원 학생 수의 변화 (2001. 12. 현재)

구분	학교 수	학과 수		재적 학생 수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여
1970	64	532	281	6,640	807
1975	82	808	422	13,870	2,278
1980	121	1,108	649	33,939	5,786
1985	201	1,924	1,015	68,178	12,452
1990	298	2,998	1,289	86,911	19,560
1995	421	4,225	1,602	112,728	31,675
2000	829(17)	7,330(34)	2,412(3)	229,437(2,164)	80,072(472)
2001	905(18)	7,880(38)	2,667(8)	243,270(2,063)	91,677(533)
국립 National	139	2,198	913	71,680	25,312
공립 Public	12	130	41	3,016	770
사립 Private	754(18)	5,552(38)	1,713(8)	168,574(2,063)	65,595(533)

\* ( )는 대학원 대학의 자료로서 합계에 포함됨.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2

〈표 3〉 고등교육 기관 석·박사 과정 재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한국('01)	미국('97)	일본('00)	프랑스('97)	영국('98)	러시아('98)
대학원 재학생 수	243,270	1,016,341	205,311	204,465	167,000	98,355
인구 천명당 대학원 학생 수	5.3	3.8	1.6	3.5	2.8	0.7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기본 계획", p.1.

조정 기본계획)에 의하면 과학 논문 인용 색인(SCI) 게재 논문 수로는 세계 16위권, 질적 수준인 영향계수(Impact Factor)로 보면 세계 50위권이다. 그리고 IMD에서 발표한 2001년 국가 경쟁력은 세계 49개국 중 28위(무역수지 11위)이고, 대학교육이 경제 사회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는 49개국 중 47위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원 교육의 이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념을 구현하려는 기능적 노력이 따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원의 이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기능과 통합이 안된 채 혼돈되고 있다.

대학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 변화와 대학교육의 수요 변화에 따라 성격이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전통적인 대학으로 중세의 대학은 자유로운 연구 정신으로 성직자 등 전문직업인을 양성했는데, 독일의 경우 학문 연구를 중심 이념으로 하면서 연구와 교육을 일치시켰으며, 영국의 경우 교양 교육을 중시하면서 교육을 이념에서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를 이념으로 하면서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미국 대학의 경우 학문과 교양을 결합하고 봉사과 실용을 강조하면서 대중 교육을 추구해 왔다. 독일의 대학도 실용적 전문 직업 교육을 강조하면서 대학교육의 대중화를 이루어 왔다. 영국은 엘리트 신사교육과 전문 직업 교육을 병행하면서 대학의 보편화를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대학이념의 혼돈과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고,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이념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과도한 직업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이념과 현상으로 보여진다.

대학원 교육의 이념의 변화도 전체 대학의 이념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이념으로 하여 학자를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산업화시대 이후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대학은 대중적인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종래 대학이 주도하던 지식의 창조와 응용은 대학원 교육단계로 이양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조직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대학원 교육은 학문 연구와 함께 지식과 기술의 개발의 이념과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념과 기능의 혼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유형을 분화하고, 연구중심대학(대학원 위주 연구중심대학과 연구중심 단설대학원), 교육중심대학(대학원병설 교육중심대학, 학부 위주 교육중심대학), 기술인력양성대학 등으로 분화하여 특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형식적 체제는 변화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돈 현상을 면치 못하면서 이념의 혼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유형별 특성화와 기능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위 열린교육체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와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와 기능 분화를 강조한 교육 개혁방향에 따라 대학원의 수가 급팽창하였지만 대학원의 유형에 따른 특성화와 기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1조에는 대학원의 종류를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나누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 분야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이 주된 교육목적에 따르는 유형화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육목적의 구분에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의 계속교육의 과정이나 내용에서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주된 교육목적'이라고 하여 엄격한 구분이 어려운 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문대학원에서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원의 경우 교장과 장학사, 그리고 교과 전문가에 대한 박사 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원에만 두려는 방침은 전문직업인 양성과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법령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고, 운영에서도 차별성이 없이 이론 위주의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유형화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고 특성화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 학문·이론 위주의 교육을 하는 일반대학원과 차별하기 어렵고, 특수대학원과의 차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이 학위와 같은 분야의 전문직 자격과의 연계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교육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있다.

넷째, 대학원 인가의 남발로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운영이 부실한 점이다.

일반대학원은 138개 대학에서 138개 대학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은 불과 2~3년 사이에 72개 대학에서 99개 대학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특수대학원은 174개 대학에서 708개의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진통과 규모, 성격에 관계없이 대학원 설치의 구색 갖추기 현상으로 남설되어 왔다.

특히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오늘과 같이 팽창된 원인은 사회의 고학력 추세와 직업인들의 자기발전 욕구의 상승으로 교육의 수요가 증대된 점이다. 직업인의 자기발전 욕구는 학문적 성취감과 전문성의 함양을 위한 측면과 직장의 인사에서 석사 학위를 연구실적 점수로서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승진 요건을 구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의 경우는 후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직업인들의 대학원 진학 욕구에 영합하여 대학원은 별도의 교원이나 추가 시설이 없이도 기존의 시설과 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으로 대학 재정 보충 및 재정난 완화책으로, 그리고 대학원 설치 경영이 학부 학생 입학 홍보, 대학의 위상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점 등 대학의 경영 측면의 유리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직업인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시장경쟁원리 도입 등의 정책 전환으로 심지어 학부에 교직과정이 없는 대학도 교육대학원 신설 인가를 한 무분별한 인가정책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특수대학원의 수가 증가한 것이 직업인의 교육

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인과 일반 성인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대학원 교육을 받게 되어 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공급하는 대학간에 교육의 질을 경쟁하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원을 진학할 직장인이나 일반인의 수는 일정한데 공급 기관만 늘어나게 되므로 원생 유치를 위한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이 나타나는 것이다. 원생들이 수료 이후의 연수 성적이 승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대학원이나 같으므로 교육의 질이나 평판도를 보고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싸고, 편하고, 쉬운 대학원을 선호하게 되자 대학원간의 경쟁이 교육의 질을 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쉽게 다니고, 쉽게 학위 취득하는 방식을 홍보하는 저질의 경쟁이 나타나므로, 교육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자의 진학 목적이 학문적 성취나 전문성 개발보다 승진 점수 취득이 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원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목적은 종전에는 학문적 성취나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아발전을 위한 내적 욕구 충족과 부수적으로 학위 취득으로 인한 승진 점수 취득이었는데, 근래에는 승진 점수 획득이 주목적이고 학문적 성취나 전문성 심화를 통한 자아개발은 부수적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 업무가 점점 과중하게 되고, 교사들이 대학원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공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 보다 값싸고, 쉬운 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대학원의 학사관리는 점점 부실해지고 있다. 원생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석일수를 줄이면서 주 1회 출석 강의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종합시험에서 외국어 시험을 없애거나 종합시험 자체를 없애기도

하고, 4학기 졸업, 학위논문 대신 수업학점이나 보고서로 대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위논문 대신 수업학점을 보충하거나 연구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현장 교사 교육에 적합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원생들의 '쉽게, 빨리' 라는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도 대학원의 질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그나마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1999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 교육대학원들이 교육 여건을 정비하고, 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한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타 특수대학원의 경우 평가 체제도 갖추어지지 않고 계획도 없는 실정이라 교육의 질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대학원도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당시 평가 체제와 절차 등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교육대학원 평가체제와 절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1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목적인 바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대학원 인가의 남발로 학사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학원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다섯째,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여도도 높지 못하다.

대학원 교육은 지식의 창조와 응용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연구하여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사회의 요청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원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산업계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 양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과간 장벽으로 인해 학제간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원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이룬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차별화 되지 않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전문인력양성의  
기능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대학원의 이념을 명확히 하고  
이념에 충실한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이념과 기능이 통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에 대해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질적인 통제할 능력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과 경쟁 풍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의 조건과 환경에서 대학원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는 앞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대학원 본래의 목적보다 별도의 교원, 시설이 없이 대학 재정 보충 및 재정난 완화책으로, 그리고 대학원 설치 경영이 학부 학생 입학 홍보, 대학의 위상 제고 등에 목적을 두고 다투어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고 이를 인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Ⅲ. 대학원 교육의 과제

#### 1. 대학원의 이념과 기능의 통합 — 새로운 이념 정립의 노력

현재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주된 교육목적은 달리 하여 차별화 하도록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기술인력양성대학으로 유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이룬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차별화 되지 않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전문인력양성의 기능 구

분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대학원의 이념을 명확히 하고 이념에 충실한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이념과 기능이 통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기술인력양성대학의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학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목표, 기능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중심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학문 연구를 통한 이론 개발과 지식·기술 생산을 담당하는 대학으로 개념을 규정할 수 있지만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이념과 기능이 통합될 수 있는 교육력을 인정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서로는 연구중심대학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경우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평판이 낮아진다는 생각으로 연구중심대학을 내걸게 된다. 대학의 유형에 따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을 지향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많이 논의된 것이지만 국립대학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2. 대학원의 특성화 유도 및 평가체제 개선

대학지원정책은 신뢰성 높은 평가와 연계한 정

부 지원의 차별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학들이 여전히 규모와 양의 확대만 지향하고 있으므로 수직적·수평적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의 유형화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고 제시하여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평가와 연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 지표를 적용하여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정부 주도로 유형화하기는 어렵다.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회 등의 지원을 통한 자율적인 평가를 유도하고, 전문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계, 전문가, 직능단체 등이 협력하여 평가 모델을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학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제 12조의 국가의 평가기능은 학력평가와 인증제도에 한정되고 있지만, 이 규정에 근거하거나 별도의 고등교육기관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 및 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연구중심대학원의 지원 육성

탁월한 연구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 양성 및 창의적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대학원을 선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집중 투자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뇌한국 21' 사업은 부족한 인프라 및 연구비 규모 확충 등 대학연구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4. 대학원 설립 운영 규정 제정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확충하여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현재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대학 기준으로 규정된 대학원 설치 기준을 별도로 하여 '대학원 설립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전의 대학원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고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에 맞도록 새로운 대학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대학원 교육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5. 대학원 전임교원제 운영

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대학원 전임교원제를 법정화하여, 교육과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초빙교원제 및 겸임교원제는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게 일정 시수의 강의를 부담하면 전임교원 수로 산정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6. 대학원 학사관리제도 개선

특수대학원 경우 학생 모집의 경쟁으로 학사관리가 극도로 부실한 실정이다. 이수학기 축소, 논문 석사제 또는 수업석사제의 자율적 선택 등으로 교육 내용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 협의체의 자율적 노력과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7. 대학원 행정조직 강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10여 개의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면서 대학원 행정 인력과 조직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학생 1인당 행정 지원 및 교육 지원 인력 지표를 제시하여 대학원 행정을 정상화하고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과 행정 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 8. 대학원 예산 독립 편성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비도 책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원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집행되도록 대학원 운영 규정에 규정하여야 하며 학생 1인당 운영비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 IV. 맺는 말

21세기의 대학교육을 위한 준비로 새로운 대학의 이념 및 기능 설정, 대학의 자율적 경쟁 체제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및 학사 운영의 개혁, 교육 및 연구개발 체제의 개선, 경영 혁신 등의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대학은 대중적인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종래 대학이 주도하던 지식의 창조와 응용은 대학원 교육 단계로 이양되고 있는 점이다. 사회조직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대학원 교육의 주 기능이 지식과 기술의 개발·연구로 인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대학원과 대학원 재학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원의 과제는 이념을 재정립하고 이념과 기능을 통합하면서 유형에 따라 특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 여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유도, 개별 대학의 혁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00~2002.  
김신복(1993).『대학원 교육·행정체제 개선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미나 자료.  
대한민국 정부(2002).『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장수영(2001).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대학교육 역량 제고".『국가인적 자원비전 200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1세기 대학교육의 방향". 『대학교육』1999. 7·8월호.

### 강인수

고려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논저로는 『교육법연구』, 『교육법론』, 『대학시장개방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학구성원의 교육권』, 『사학분규해결방안 연구』, 『우리나라 대학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